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B/ F 인증 우수등급 취득

- 장애인의 체육 시설이용 문턱을 낮춰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의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시설을 갖춰 BF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5월 개관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4,249㎡ 규모로 1층은 장애인전용목욕탕과 휴게실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은 체력측정실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3층은 프로그램실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전문 운동처방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초체력을 측정,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우수 등급 인증 받은 시설에 걸맞게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상생과 협력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F인증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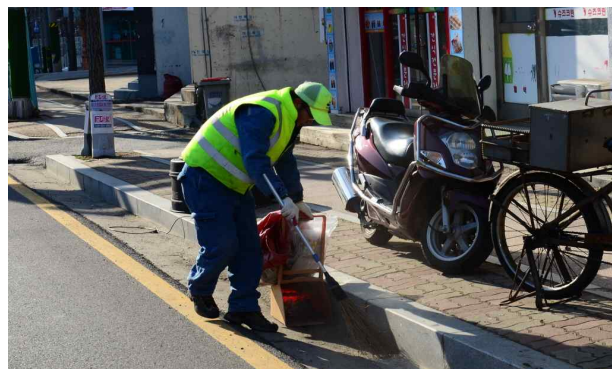
추석명절맞이 취약지역 특별청소

-주요도로, 공원묘지, 공한지등 집중 청소-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 및 귀성객,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명절을 보내며 여수시의 좋은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추석명절 특별청소대책’을 마련, 대청소를 실시했다.

특별청소 기간에는 산단 내 주요도로, 시립공원묘지, 주요 간선도로, 공한지 등 취약지역의 적체된 쓰레기·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다.

또한, 장기간 연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동처리반 운영 등 청소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민원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공단관계자는 “추석연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쓰레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전했다.

한편, 공단은 시민 편의를 위해 9월 24~ 25일을 제외한 나머지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을 정상 수거했다.

전국1위 관광도시에 발맞춰 청소행정에도 힘써

-쾌적하고 청결한 낭만도시 만들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관광성수기를 맞아 낭만의 도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여수이미지를 심어줬다.

특히, 밤하늘을 수놓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압록박스 2대 등을 배치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였다.

이번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기간에는 약 13만 여명이 관람하여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행사장 주변 조기청소로 청결한 낭만도시를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수의



이미지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08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국1위의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다.

공영주차장, 봉황산자연휴양림 위수탁

-시설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질높은 공익서비스 기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9월 1일부터 여수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봉황산자연휴양림과 유료 공영주차장 30개소를 운영한다.

이번에 공단으로 이관된 봉황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12동 등 총2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유료 공영주차장은 노상 5개소, 노외 25개소로 총3,331면이다.

공단은 시설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시설관리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시에서 근무한 주차관리원 40명, 휴양림관리원 10명은 공단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환경사업소 추석 비상근무체제 돌입



환경사업소에서는 다가올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비상근무기간 동안 소각시설의 정상운영을 통해 연휴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에 대처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반입 될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폐기물 저장조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유사시 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사업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